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의 사회지리학적 연구

배 미애*

The Social Geography of Academic Achievement in Deprived Area

Mi-Ae Bae*

요약 : 본 연구는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 지역은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은 거주지역의 박탈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박탈지표를 사용하여 박탈공간의 패턴을 알아보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동잉글랜드에서 학업성취도는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박탈현상이 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남동잉글랜드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박탈지역은 일반적으로 남동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박탈현상이 약해지면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거주지역의 박탈요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주요어 : 박탈지역, 학업성취도, 균린지역통계, 거주환경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a spatial pattern and processes of academic achievement in deprived area,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deprivation as social context. It links academic achievement data with neighborhood data from the 2001 UK Census(by ward) in South East England and uses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to estimate the contribution of social depriv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of primary school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in the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imary schools. It also argues that more deprived area in South East England would tend to promote greater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in the spatial aspects, relating to Key Stage 2 score.

Key Words : deprived area, academic achievement, neighbourhood stat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Key Stage score

1. 서론

1) 연구목적

지리학자들은 지금까지 거주환경에 따른 도시내부의 공간적 특성을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도시 내의 다양한 거주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전도(Gigg, 1979), 범죄 및 폭력(Davison, 1981, Murray & Boal, 1979), 청소년비행(Herbert, 1976), 투표행태(Johnston, 1976), 교육재원의 불균형(Bae, 1999) 등과 같은 사회적 주제(Gigg, 1979;

Davison, 1981; Herbert, 1976; Murray, 1979; Johuston, 1976; Murphy, 1989; Bae, 2000)들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설명적 요인이 되어 왔다.

거주환경과 교육적 성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지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리학에서는 ‘학군의 사회지리학(social geography of the school catchment area)’적 연구를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군의 사회지리학은 학교재정의 자치위임, 학업성취도, 교육수행평가 등 학교와 관련된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bae@pusan.ac.kr

중요한 내용들이 학교라는 제도적 요소보다는 사회적인 요소로서 그 학교가 속한 지역의 거주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Moulden and Bradford, 1984). 지역사회와의 거주환경은 공간적 집합체의 중요한 단위로서 인식되고 형성발달에서부터 사회적 영향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개인의 지적 능력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적 성과도 물리적 환경 또는 제도적인 특성보다는 거주환경과 같은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Garner and Raudenbush, 1991).

거주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Garner and Raudenbush, 1991). 첫째는 심리적인 측면으로서 거주환경이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거주환경은 서로 다른 교육적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특정개인의 성격과 연관된다. 둘째는 거주환경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거주환경의 질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질과 양은 개인의 인지발달과 성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과밀주택의 경우, 아동들의 놀이공간이 ‘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과의 낮은 접촉빈도는 결국 언어발달의 교육적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는 경제적 측면으로서 물질적 빈곤과 같은 경제적 압력이 비록 근본적으로는 개인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이와 같은 개인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이 집중된 거주지역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절망과 무익의 감정은 학업성취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주환경의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이라는 물질적인 ‘박탈’의 상황을 통하여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인 박탈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Gordon and Spicker, 1999) 경제적인 박탈은 사회 전반적인 박탈현상으로 확대되어 학업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진 몇몇 연구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박탈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은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성취도를 나타낸 것으로도 알 수 있다.(CACE 1967, Coleman

et al 1966, Rutter and Madge 1976, Rutter et al 1979)

거주환경, 특히 사회적 박탈공간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학군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우선 사회적 박탈요인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단위지역의 거주환경의 특성을 명백히 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박탈요인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박탈요인에 의해 성격이 부여된 단위지역의 거주환경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의 패턴을 제시하고 사회적 박탈의 상황을 통하여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박탈지역과 연구주제와의 깊은 연관성을 재차 증명하고 지역사회 이해에 있어 거주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환경이 교육적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교육적인 성과를 예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박탈지역을 비롯한 낮은 학업성취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교육적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교육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위의 연구목적을 위한 사회적 박탈지역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공간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지역은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지역이며 연구단위지역은 영국 통계청의 통계지역단위(The Nomenclature of Units for Territorial Statistics: NUTS)에 근거하여 네 번째 단계에서 세분화된 총 68개의 NUT4 지역이다. NUT4 68개 지역을 포함하는 남동잉글랜드지역은 NUT2의 4지역으로 통합된다. Berkshire, Buckinghamshire and Oxfordshire; Hampshire and Isle of Wight; Surrey, East and West Sussex; Kent로서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Berkshire, Hampshire, Surrey, Kent로 설명하였다. (그림 1).

남동 잉글랜드지역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국 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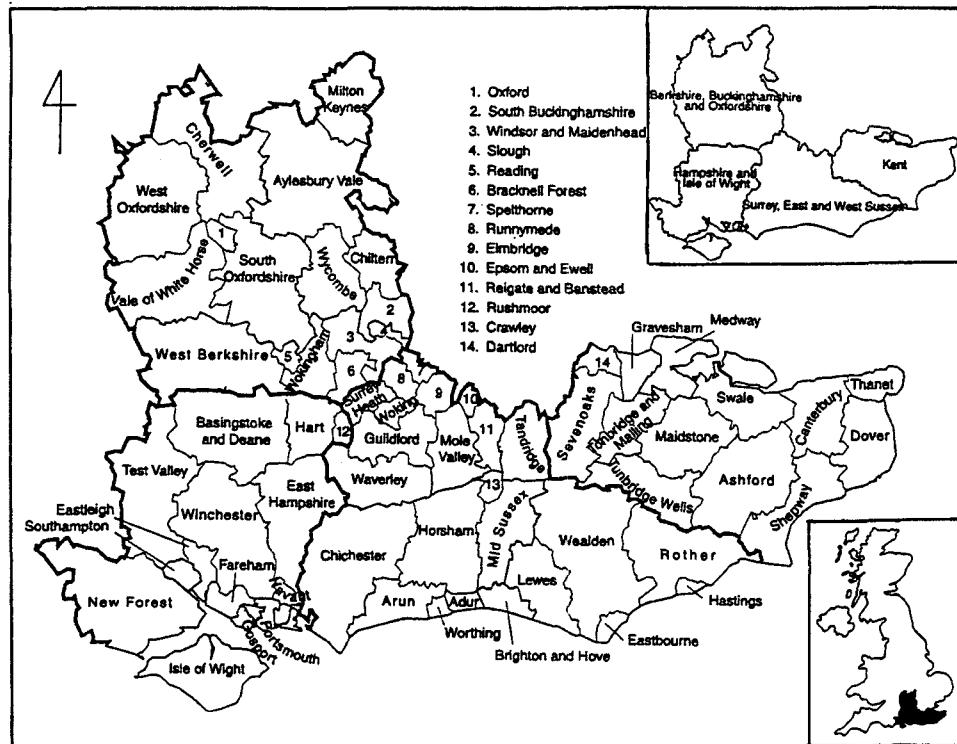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남동잉글랜드,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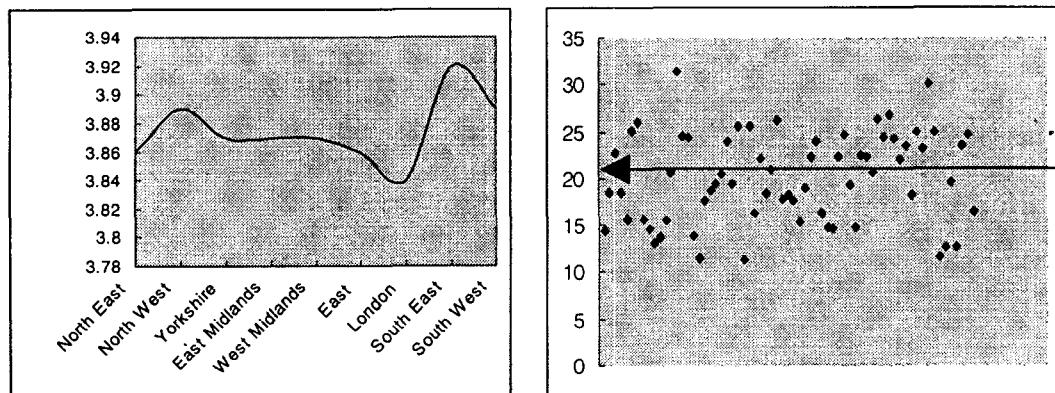


그림 2. 높은 학업성취도와 지역적 분산(남동잉글랜드)

역을 통해 가장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이다.(KS2 점수, 1998) 그러나 남동부 지역 내에서는 학업성취도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등한 특징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 거주환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며, 또한 박탈지역과는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타당한 이유로서 간주될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박탈현상과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주지역의 박탈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자

료는 영국 통계청의 근린지역통계(neighbourhood statistics)¹⁾에서 제시된 박탈관련 통계자료를 NUT4의 지역단위에 해당하는 자료로 다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의 기준연도는 2000년이며 사회적 박탈이 이루어진 공간임을 명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거주 환경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소득,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서비스에의 접근도, 아동빈곤 등 7개 분야의 박탈지수를 사용하였다. 표 1을 통하여 거주지역의 박탈을 알아볼 수 있는 7개의 주요 지표들과 관련변수를 제시하였다.

학업성취도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는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험을 통한 평가 자료로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는 1998년도 여름에 시행한 초등학교 6학년(만 11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학능력평가인 KS2(Key Stage 2)²⁾의 결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어, 수학, 과학의 평균점수를 통계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등학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초등학교의 평가결과를 학업성취도 자료로서 사용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군제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청(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은 학생들을 거주지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 및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주환경과 학부모의 특성이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거주환경, 특히 사회적 박탈지역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또한 학군의 사회지리학이 추구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박탈된 거주환경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소득,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서비스에의 접근, 아동빈곤 등 7개 박탈지수를 선정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박탈로 인한 거주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박탈된 거주환경을 가진 지역과 학업성취도의 일반적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 연구의 학문적 위상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셋째, 박탈지수의 공간

표 1. 박탈지표와 구성변수

소득	소득지원가구의 성인수(1998, DSS) 소득지원가구의 아동수(1998, DSS) 소득에 기초한 구직허가가구의 성인수(1998, DSS) 소득에 기초한 구직허가가구의 아동수(1998, DSS) 가족부조가구의 성인수(1999, DSS) 가족부조가구의 아동수(1999, DSS) 장애인고용허가가구의 성인수(1999, DSS) 장애인고용허가가구의 아동수(1999, DSS) 무소득, 무연금, 세제혜택수령장애인수(DSS, 1998)
고용	평균실직자수(1998, 5; 1998, 8; 1998, 11; 1999, 2, JUVOS, ONS) 재취업교육을 받는 실직자수(1998, DfEE) 뉴딜옵션과정에 있는 18-24세 인구수(1998, ES) 16-59세 사이 무능력자혜택 수령자수(1998, DSS) 16-59세 사이 중증장애인수(1999, DSS)
보건	65세 이하 비교사망율(1997/1998, ONS) 장애인시설 거주인수(1998, DSS) 장애인 혹은 중증장애인 혜택 인구 중 근로참여인구비율 (1998: 1999, DSS) 장기질병혜택인구의 연령비(1991, Census) 장기질병혜택인구의 성비(1991, Census) 저체중 신생아 출생비율(1993-7, ONS)
교육	무자격 성인 노동인구(1995-1998, LFS)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16세 이상 인구수(1999, DSS) HE에 등록하지 않은 17-19세 인구비율(1997: 1998, UCAS) 영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초등학생수(1998, DfEE) 초등학교의 무단결석자수(1998, DfEE)
주택	일시적 주거지를 가진 무주택가구수(1997-1998, LAHPR) 과밀주택가구수(1991, Census) 열악한 민영주택수(1996, EHCS, RESIDATA)
서비스에의 접근도	우체국에의 접근도(1998, 4, GPOC) 식료품상점에의 접근도(1998, DC) GP(공중의)에의 접근도(1997, 10, NHS, BMA, SHS) 초등학교에의 접근성(1999, DfEE)
아동빈곤	무료급식학생수(1998, DfEE)

* BMA(British Medical Association) DC(Data Consultancy) DSS(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fEE(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EHCS (English house Condition Survey) ES(Employment Service) GPOC(General Post Office Counters)
LAHPR(Local Authority HIP Returns) LFS(Labor Force Survey) NHS(National Health Service) 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SIDATA(Resident & Patient Data) SHS(Scottish Health Service) UCAS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적 분포를 통하여 부문별 박탈공간의 일반적 패턴을 제시하고 7개 부문을 통합한 종합적 박탈공간을 제시하고 특성을 규명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와 박탈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박탈지역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간의 깊은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잔차도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순차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거주환경, 특히 박탈된 지역과 낮은 학업성취도 간의 강한 연관성을 증명하고, 특히 박탈지역 내에서도 학업성취도의 강한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

1) 사회적 박탈과 거주환경

Brown과 Madge(1982)에 따르면 박탈(deprivation)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물질적, 정서적, 육체적, 행동적으로 불만족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며, 인간이 살아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것, 즉 적절한 소득, 양호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결핍으로 인하여 정도가 어떻든 간에 고통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Townsend(1979)는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이 그가 속한 지방이나 사회 혹은 국가에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지는 경우를 박탈의 상태로서 간주함으로써 박탈의 개념을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박탈지수는 빈곤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범주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이다. 따라서 박탈환경은 빈곤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박탈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서비스에의 접근성, 아동빈곤 등 거주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였다.³⁾ 소득과 관련한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저 소득자와 연관되며 소득에서의 박탈을 가장 중요한 박탈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임금고용자들은 낮은 월세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일상생활용품의 구입에 있어서도 가격이

싼 질 낮은 상품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더구나 유료 서비스에는 더욱 민감하여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소득과 관련하여 빈곤한 문화를 만들어 냈으므로써 전반적으로 빈곤지역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빈곤문화는 박탈지역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여겨진다. 고용과 관련한 박탈지표는 일을 하기를 원하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신체 및 기타 부적절한 조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이탈된 자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자본에 의한 저임금 고용 역시 실업을 유발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실직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혹은 매우 적은 임금의 고용상태는 일정지역에서 독특한 실업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박탈지역으로 간주되며 빈곤지역과 거의 일치한다.(Jencks and Mayer, 1990)

보건지표는 구체적으로 건강박탈과 장애를 의미하며 불량한 건강상태와 장애로 인하여 삶의 질이 손상된 자들에게 의미를 두며 이는 박탈의 여타 지표들과 매우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불량건강 상태 자체도 박탈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혜택이나 공중위생개념의 낮은 인식도는 높은 질병율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다 나은 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원이 부재한다면 질병치료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고 건강박탈의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교육부문에서의 박탈은 성인과 아동의 낮은 교육·기술수준 및 불충분한 수학정도로서 지표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취감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적 결과는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불만족스러운 주택에 거주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주택박탈은 거주환경의 박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은행담보대출이나 주택보험 등에서 매우 제한된 혜택을 받는 지역(redlining area)으로서 주택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택의 개보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질이 매우 불량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거주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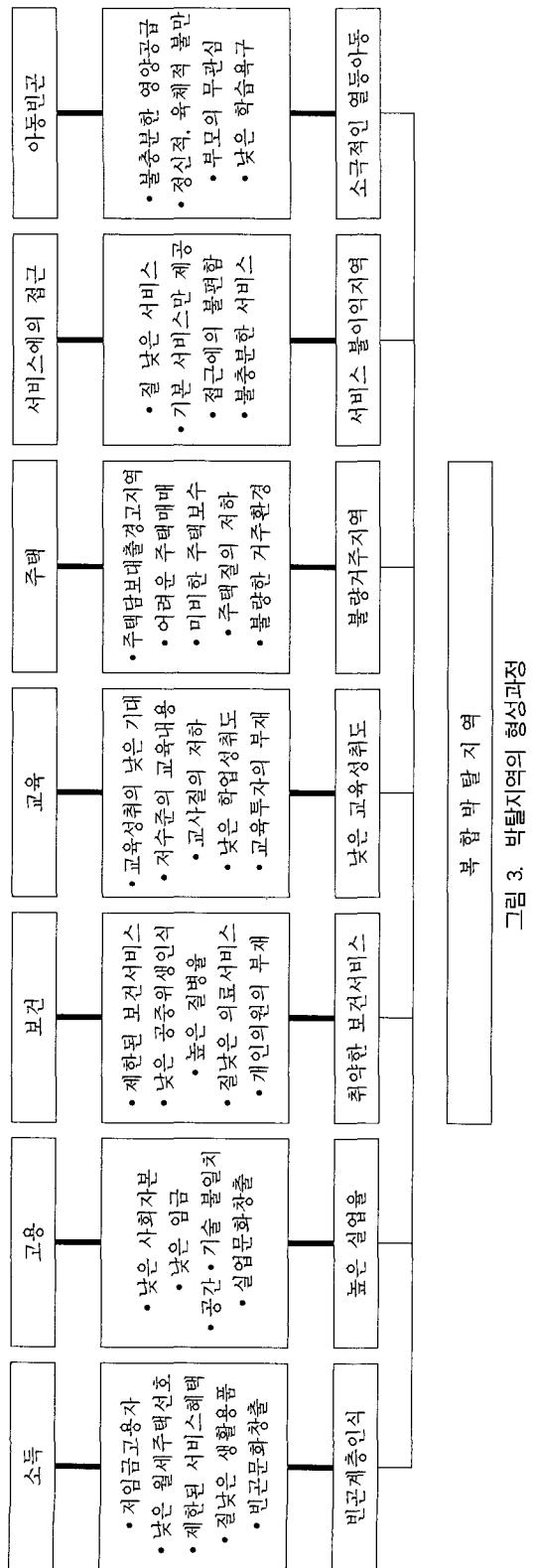


그림 3. 박탈지역의 형성과정

주지역을 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우체국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도를 나타내며 이 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서로 연관되면서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가진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박탈지역의 주민들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도를 나타낸다.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던가, 서비스를 평준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무시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지역들은 서비스 접근에서 불이익을 받는 박탈지역으로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아동빈곤지표는 거주환경의 박탈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아동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손상을 가져다줌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아동빈곤지표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수를 구성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불충분한 영양공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만들고 낮은 학습욕구로 이어진다. 여기에 부모의 무관심이 보태진다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며, 열등감을 가진 아동으로 특징지어 지게 된다. 이는 박탈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동들의 특징이다.

소득,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서비스에의 접근도, 아동빈곤 등 7개의 지표가 박탈지역을 형성과정을 그림 3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 외에 범죄 및 사회질서,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한 지표들도 거주지역의 박탈환경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로서 인식되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이나 소규모 지역별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의 미비 등으로 연구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동향

거주환경이 주민의 행태적 혹은 심리적 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관한 연구는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또는 인종적 배경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 사회경제적 배경 효과(contextual effects), 지역효과(area effect) 등 다양한 유사한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구되어 왔다. 거주환경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거주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학업성취도와의 강한 상관관계를 밝힌 많은 연구가 배경적 효과(contextual effects)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Coleman보고서(1966)에 따르면 교육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교육성과를 나타낸다. 또한 Sanger(1979)는 학생들의 거주환경과 배경, 교육재원의 불균등한 분포, 학교의 제도적 특성(학교수준, 교사의 기대 등)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공선택론에 기초한 공공재의 분포모델과 Tiebout(1956)의 가정⁵⁾에 근거하여 학업성취도와 거주환경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Bradford(1984)는 영국의 맨체스터시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택의 질, 그리고 이주를 주요 요인으로 거주환경이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Sammons와 그의 동료들(1993)도 전체적인 학교규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Dura-Bellat(2000)은 프랑스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었는데, 학업성취는 개인적 요소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받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Paterson(1991)과 White(1982)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White(1982)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변수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주택의 질, 거주지역의 질 등을 주요 변수로 삼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계층, 인종적 지위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Willms(1986)는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계층과 학업성취도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밝혀냈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와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인종적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Plewis(1987)는 런던내부지역을 대상으로 흑인과 백인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연구하였고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와 다양한 인종집단이 받는 사회적 불이

의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Nuttal(1990)도 인종집단의 차이와 학업성취도의 차이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흑인지역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는 달리 백인지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Vartanian과 Gleason(1999)에 의해 이루어졌다.

거주환경의 다양한 성격 중에서 박탈된 거주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Garner(1988)는 영국의 클래스고우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의해 중요하게 영향 받으며 특히 거주지역의 박탈 현상과 관계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에딘버러시에 적용한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학업성취도와 박탈지역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Garner and Raudenbush, 1991). 그들은 균린효과(neighborhood effect)의 측면에서 빈곤지역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Jencks와 Mayer(1990)는 박탈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주민이 거주환경에 의해 학업성취나 행동발달의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Shuttleworth(1995)는 북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박탈과 교육적 성취간의 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박탈변수는 무료급식학생수이고, 교육적 성취변수는 중학생의 GCSE(General Certificate Secondary Education) 점수이다. 또한 균린지역의 위치가 개인 또는 가구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특히 박탈지역에서 지방서비스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낮은 교육적 성취나 보건서비스와 같은 부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가 Ellen과 Turner(1997)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 Atkinson과 Kintrea(2001)은 박탈지역의 주민들이 박탈되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학문에 대한 관심과 도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박탈지역은 전적으로 소득에 기초한 빈곤지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런던교육청의 자료를 근거로 Demie 등(2002)은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배경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비박탈지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지역과 시험성적은 강한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3. 사회적 박탈의 공간적 특성

1) 부문별 박탈지표에 의한 공간 패턴

거주지역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집되고 분화된다. 사회지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사회공간의 이러한 특성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사회적 양극화로 불려지는 극단적인 공간분화현상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서구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종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집이라는 과정과 분화라는 결과를 통하여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각 지역들에 부여한다. 그럼 4는 박탈로 인한 거주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택 등의 박탈지표에 근거하여 남동잉글랜드의 박탈거주환경패턴을 공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 박탈 정도는 Surrey의 Hastings에서 가장 높게, Hampshire에 속한 Hart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Surrey의 Medway, Swale, Dover, Hampshire의 Southampton, Brighton and Hove 등 남동부 해안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rkshire와 같은 내륙지역은 해안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다른 내륙지역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에서 남동잉글랜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지역별로 공간적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소득박탈지수는 이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공간적 불평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득과 관련한 박탈지표는 거주환경을 특징짓는 여타 다른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며, 따라서 다른 여타 지표에 의한 공간적 패턴도 소득박탈의 공간적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고용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상태는 소득의 유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낮은 고용율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이어진다. 남동잉글랜드에서 고용박탈의 공간적 분포는 소득박탈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이는 고용과 소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고용박탈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각각 Surrey의 Hastings와 Hampshire의 Hart로서 소득박탈의 최고, 최저지역과 일치한다. 그리고 소득박탈의 분포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남동해안지역들이 높은 고용박탈의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내륙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고용상태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고용을 결정짓는 주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질병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상태나 신체적인 장애 등은 고용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건강에서의 박탈상태는 고용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상실감을 안겨다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과 고용, 그리고 건강상태의 박탈현상이 공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4에서 보듯이 남동잉글랜드에서 소득, 고용, 건강과 관련한 박탈의 공간적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이 예외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세 지역 즉, Berkshire, Hampshire, Surrey에 비해서 Kent가 이 세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현상을 보임으로써 공간적인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5세에서의 11세까지의 초등교육과 11세에서 16세까지의 중등교육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중등학교의 약 7%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초 중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우 선택적이다. 학업의 지속과 사립학교의 선택여부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태에 의존한다. 개인 소득의 유무 혹은 다소는 교육적 박탈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경제적 지위는 교육박탈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교육박탈이 나타나는 지역은 낮은 소득박탈지역과 일치하며 고용 및 건강박탈지역과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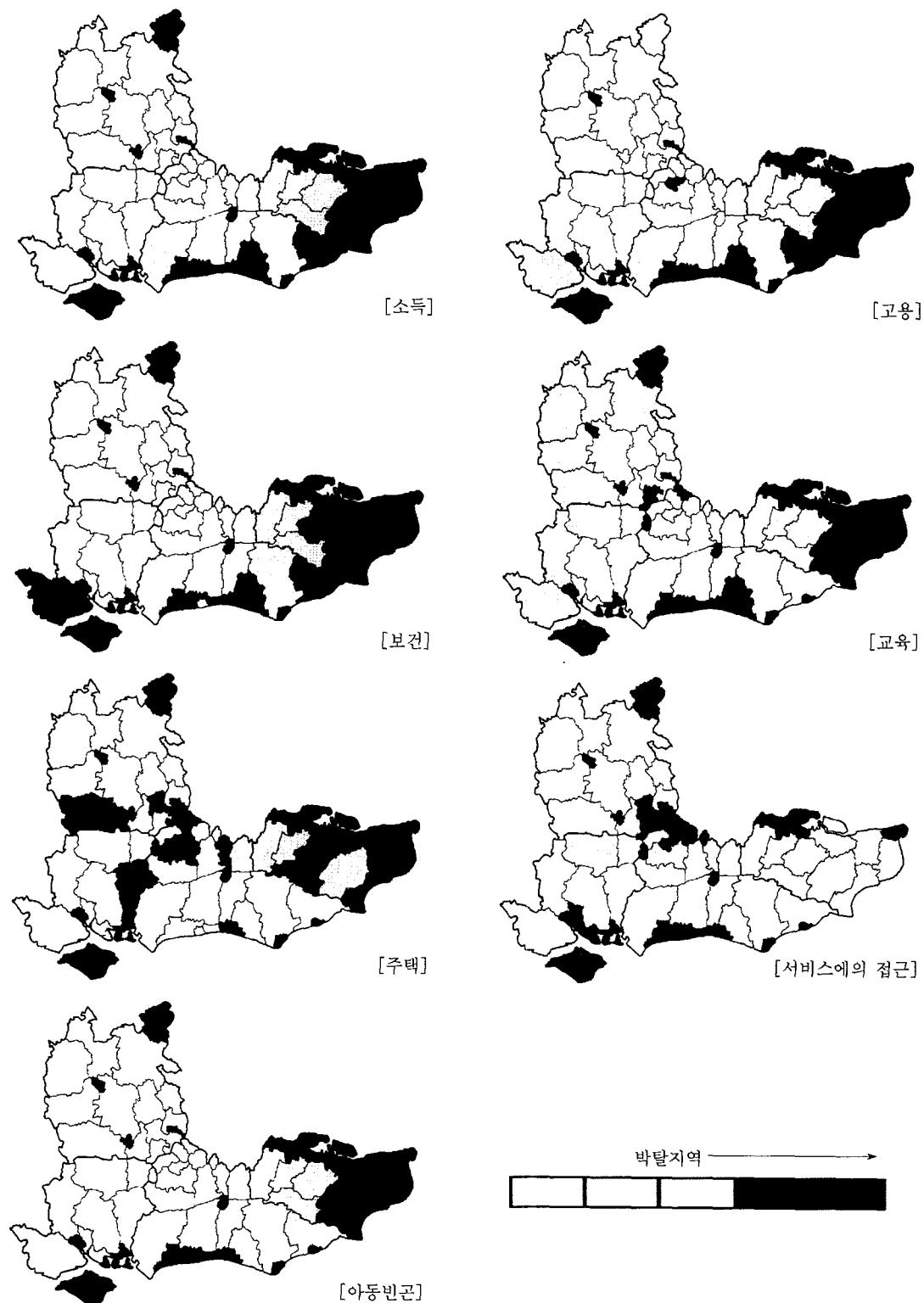


그림 4. 박탈지표에 의한 공간패턴(남동잉글랜드)

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국의 남동 잉글랜드에서 가장 교육적 박탈이 심한 지역은 역시 Surrey의 Hastings이며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수학정도를 나타낸 지역은 Surrey의 Waverley이다. 그 외 내륙의 소규모 지역인 Berkshire의 Oxford, Slough, Reading, 그리고 Surrey의 Crawley와 남동 해안지역에서 높은 박탈을 나타냈다.

불만족스러운 주택에 거주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주택박탈은 외관상으로 거주지의 박탈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소이다. 주택박탈의 상태가 가장 심한 지역은 Berkshire의 Winsor and Maidenhead이며 가장 만족스러운 주택 환경을 Hampshire의 Fareha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동해안지역의 높은 주택박탈현상과 내륙지역의 양호한 상태로서 나타나는 패턴은 소득, 고용, 건강, 교육관련 박탈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서비스에의 접근도에 있어서 박탈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우체국이나 식료품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들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보건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불평등한 분포로 인하여 일반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불평등도 경험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건박탈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박탈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의 분포도 거의 유사하다. Surrey의 남부해안지역, 즉 Hastings, Eastbourne, Adur, Brighton and Hove, Worthing에서 매우 낮은 접근도를 나타낸다. 이 지역은 소득과 보건에서도 매우 박탈현상이 심한 지역이다. Southampton, Portsmouth, Havant, Gosport, Isle of Wight 등 Hampshire의 남부해안도 예외는 아니다. Kent의 동부해안지역도 서비스의 불이익을 받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박탈지표들의 공간적 패턴은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난다.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박탈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잉글랜드의 남동해안에 있는 Surrey의 Hastings이며 Hampshire의 Southampton, Portsmouth, Gosport, Havant, Surrey의 Brighton and Hove, Eastbourne, Kent의 Gravesend, Medway, Swale, Dover, Thanet, Shepway와 같은 남동부 해안지역들에서 높은 박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낮은 박탈점수를 나타낸 지역은 Hampshire에 속한 Hart

이며 Winchester, Surrey Heath, Wokingham, Elmbridge 등을 비롯한 남동 잉글랜드 내륙 지역은 해안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박탈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륙지역 중에서도 Oxford, Slough 등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심하게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복합박탈지표에 의한 공간패턴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바탕으로 한 박탈 현상은 거주지역의 주택, 보건, 교육 등에 영향을 주어 '박탈지역'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박탈현상'에 준거한 공간적 패턴은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영국 남동 잉글랜드에서 거주환경의 공간적 패턴도 예외는 아니다.

그림 5는 소득, 고용, 주택, 교육, 보건, 접근도 6개의 박탈지표를 종합한 복합박탈지수⁵⁾를 지도화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남동잉글랜드의 4개의 지역단위 중에서 Kent가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심한 박탈현상을 나타내며 특히 해안에 연한 Shepway, Dover, Swale, Medway, Gravesend는 전체 지역을 통해 가장 박탈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Berkshire는 Oxford, Reading, Slough와 같은 소규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박탈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Berkshire에서 특히 Chiltern과 Wokingham의 거주환경이 가장 양



그림 5. 복합박탈지표의 공간패턴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outhampton, Gosport, Havant, Isle of Wight와 같은 일부 해안의 소규모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Surrey보다는 Hampshire의 거주 환경이 양호하며 이 지역에 속하는 Hart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남동잉글랜드에서 가장 양호한 거주상태를 나타냈다. Winchester도 역시 박탈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Surrey에 속하는 남부해안의 Arun, Adur, Worthing, Brighton and Hove 등은 박탈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astings는 남동잉글랜드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박탈이 심하게 진행되어 거주환경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인식된다.

4.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의 사회지리학

1)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사회적으로 박탈된 거주환경을 가진 지역은 주민들의 소득이나 고용상태를 비롯하여 지역의 보건 및 교육환경, 그리고 주택의 질적 및 양적 상태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앞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이나 아동들의 빈곤상태가 박탈거주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거주환경을 박탈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동잉글랜드에서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남동잉글랜드의 경우 소득을 비롯한 7개 요소들의 박탈현상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을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남동잉글랜드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들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소득,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아동빈곤의 요소들은 박탈환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의 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박탈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학업성취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표에서 보듯이 교육박탈은 특히 학업성취도와 매우 강한 부적 상관성을 나타낸다. 이는 교육요소의 구성 지표가 학업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의 낮은 교육수준, 외국인수, 무단결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박탈의 변수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우체국이나 식료품점, 일반의, 초등학교의 접근성과 같은 지표로 구성되는 접근성은 시설에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빈곤층으로 구성되며 이는 아동빈곤을 구성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아동빈곤이 심할수록 학업의 성취도가 낮아지는 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남동잉글랜드에서도 박탈현상과 학업성취도의 강한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문의 박탈현상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보건과 소득도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요소들의 박탈현상이 학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남동잉글랜드에서 보여준 박탈현상과 학업성취의 높은 부적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박탈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박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992로서 매우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결정계수 0.983으로서 도출된 회귀식의 적합도는 매우 높다. 이는 박탈지표가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98%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탈지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것이라는 가정은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학업성취도(Y)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X_i 변수	상관계수(r)
소득박탈	-.866
고용박탈	-.785
보건박탈	-.853
교육박탈	-.991
주택박탈	-.651
서비스에의 접근성	.730
아동빈곤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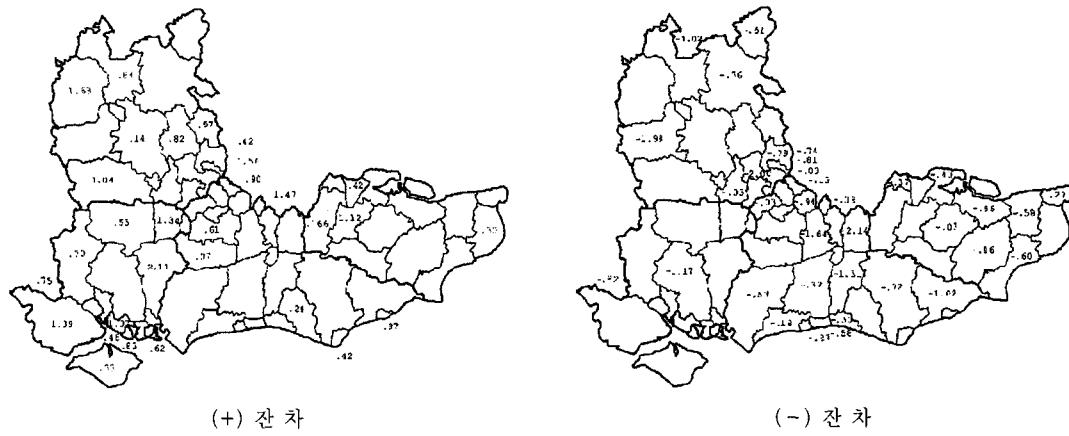


그림 6. 학업성취도의 잔차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실제치와 예측치와의 차이인 표준잔차를 산출함으로써 기존 가정의 준수여부와 박탈상태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불평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회귀식이 매우 적합하였다는 것, 즉 박탈공간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가정은 표준차차의 분산을 통해서 증명된다. 남동잉글랜드의 전체지역 중 70%가 표준차차 -1.00~1.00에 해당한다. 이는 예측치와 실제치가 거의 유사함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가정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남동잉글랜드의 잔차도는 그림 6에서 제시된다.
(+) 잔차가 나타나는 지역은 실제치가 예측치를
능가하는 경우로 실제값이 과소평가된 지역들이다.
반대로 잔차가 (-)인 지역은 예측치가 실제관측치
를 능가하는 지역으로 예측치에 비해 실제값이 과
대평가된 지역이다. 따라서 (+) 잔차 지역은 상대
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이며, (-)잔차 지
역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Berkshire에서 Chewell, South Oxfordshire, West Oxfordshire, West Berkshire, Chiltern은 (+) 잔차를 보이는 지역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으로 박탈의 상태가 매우 낮은 양호한 거주환경을 지닌 지역들이다. 이와는 달리 Slough, South Buckinghamshire, Oxford는 (-) 잔차를 나타내는 박탈현상이 매우 심한 거주지역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그러나 Berkshire에서 Wokingham, Winsor and Maidenhead, Bracknell Forest는 박탈이 진행되지 않은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값이 다소

과대평가된 (-)의 잔차를 나타냈다.

Hampshire에서 거주환경이 양호한 Test Valley, Basingstoke and Dean, Hart, East Hampshire, Fareham, New forest는 (+) 잔차를 나타내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이다. 반면 남부해안의 Southampton, Gosport, Portsmouth, Havant, Isle of Wight는 박탈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불량한 거주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의 잔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박탈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주환경이 양호한 Winchester와 Fareham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잔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Hampshire의 잔차도는 기준 가설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이는 Hampshire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박탈거주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 다른 변수를 통해 보충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Surrey에서 Spelthorne, Rynnymede, Guilford, Waverley, Epsom and Ewell은 박탈점수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잔차를 보이는 양호한 거주환경의 지역들이다. 그리고 남쪽 해안가의 Arun, Worthing, A역, Brighton and Hove, Wealden은 박탈현상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서 (-) 잔차를 보이는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Surrey의 나머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잔차 점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현상이 덜 진행된 양호한 거주환경의 지역에

서 학업성취도가 다소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ewes, Eastbourne와 같은 박탈거주환경을 지닌 지역에서 표준잔차가 (+)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치가 과소평가되어 보다 높은 학업성취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Kent에서 Sevenoaks, Tonbridge, and Malling, Tunbridge Wells와 같은 지역으로 (+)잔차를 보이는 매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비박탈 거주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반면 Medway, Swale, Ashford, Shepway, Canterbury 등은 (-) 잔차를 보이는 박탈현상이 심한 거주환경을 지닌 낮은 학업성취도 지역이다. 그러나 Gravesham과 Dover는 박탈점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 잔차를 나타냄으로써 실제치가 과소평가되어 박탈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학업성취도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박탈공간과 학업성취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학생의 개별적 속성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개별적 속성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호한 거주환경에 속한 학생보다 불량한 거주환경에 속한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더욱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낮은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박탈의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주지역은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탈공간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잔차도의 분석을 통하여 받아들여진다.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에서 박탈 거주환경을 가진 지역은 주로 남동해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박탈의 정도가 약해진다. 그리고 Berkshire나 Hampshire에 비해서 해안을 연한 지역이 많은 Surrey와 Kent가 더욱 박탈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Kent의 동쪽 해안과 Surrey 남쪽 해안의 일부지역은 남동잉글랜드 전체에서 박탈현상에 근거해서 가장 거주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남동잉글랜드에서 학업성취도는 박탈거주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은 박탈된 거주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박탈되지 않은 지역에서 (-)잔차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의 결과가 요구되거나, 이와는 반

대로 박탈지역에서 (+)잔차를 보이면서 다소 높은 학업성취도의 결과가 예상된다. 이는 박탈지표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박탈변수를 보완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변수가 고려되어야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에서 학업성취도와 박탈공간간의 관계는 박탈공간이나 그렇지 않은 공간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업성취도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변수의 설정을 통한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영국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선택은 기본적으로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군(school catchment area)의 성격은 학교의 제도적 특성이나 학생수 행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학군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1988년 교육법 개정이후 독립보조금체계를 갖춘 공립학교가 등장하면서⁶⁾ 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이 유연화 되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선택의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학교에 학생들을 전학시키려고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특히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은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경제적 빈곤이라는 물질적인 '박탈'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고용, 교육, 보건, 주택 등 사회 전반적인 박탈현상으로 확대되어 공간적으로도 박탈된 거주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박탈거주환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인 박탈을 수반하여 학업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아동빈곤의 정도가 심각한 박탈지역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박탈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은 지

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성취도를 나타낸다.

영국의 남동잉글랜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남동잉글랜드 지역은 영국에서 가장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역으로 높은 학업성취도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학업성취도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패턴을 나타냈다. Berkshire나 Hampshire 지역보다 Surrey와 Kent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고, 내륙보다는 해안으로 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Kent의 동부해안지역과 Surrey의 남부해안지역은 매우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거주지역의 박탈현상은 이 지역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박탈현상이 심한 대부분의 지역과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박탈이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박탈되지 않은 양호한 거주지역에서는 박탈현상으로만 높은 성취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박탈공간이 박탈되지 않은 공간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박탈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는 박탈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로서 설명이 보충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남동잉글랜드에서 거주환경은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박탈거주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영향이 가해지는 과정은 아직 불분명하다. 박탈공간과 비박탈공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박탈현상 외에 박탈공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들을 선정하여 설명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개인 인지에 대한 연구가 보충된다면 박탈현상과 학업성취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보다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註

- 1) 영국 통계청의 지방통계는 크게 범죄, 경제적 박탈, 교육 및 기술, 보건, 노동, 박탈지수, 인구 및 동태신고통계,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통계의 기준 연도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거의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의 통계이다.

- 2) 영국의 교육부(DfE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는 매년 초등 및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과목별 학력고사인 KS(Key Stage)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수행평가표를 작성한다. 시험의 주관단체는 GTGAT(Government's Task Group on Assessment and Testing)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을 실시되는 KS1(만 7세 대상)과 KS2(만 11세 대상)는 국어, 수학, 과학과목을 평가하며 level 4를 성취목표기준으로 설정하여 level 4이하, level 4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구분하여 학교 및 지역별 등급을 매긴다. KS3(만 14세 대상)과 KS4(만 16세 대상)은 국어, 수학, 과학의 주요 세 과목과 역사, 지리, 정보기술, 디자인과 기술, 음악, 미술, 체육을 함께 평가한다.
- 3) 영국의 통계청은 지자체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1년의 ILC(Index of Local Condition)을 보충하여 1998년에 ILD(index of Local Deprivation)으로 명칭을 바꾸어 소득(income), 고용(employment), 건강박탈과 장애(health deprivation and disability), 교육, 기술 및 훈련(education, skills and training), 주택(housing),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도(geographical access to services) 등 6개 분야에 걸쳐 소규모 단위지역별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박탈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종합박탈지수도 산출하였다.
- 4) Tiebout(1956)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적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거나, 기타 그들이 원하는 공공재가 제공된 거주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하면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과 이주의 관계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입이나 정치적인 압력이 특정지역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5) 복합박탈점수(multiple deprivation score)의 산출에서 아동빈곤지표는 제외되었으며 소득 25%, 고용 25%, 보건 15%, 교육 15%, 주택 10%, 접근도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 6) 독립보조금체계를 갖춘 학교를 GM학교(Grant-Maintained School)라고 하며, 복지국가인 영국에서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복지체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적 자치위임의 한 시도로 등장하였다. GM학교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학교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학부모회의 지원이나 여타 다른 방법의 기금모금에 의존한다.

文 獻

- Aitkin, M. and Longford, N., 1986, Statistical modelling issues in school effectiveness studies,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A*, 149(1), 1-43.
 Atkinson, R. and Kintrea, K., 2001, Disentangling area effects: evidence from deprived and non-

- deprived neighborhoods, *Urban Studies*, 38(12), 2277-2298.
- Bae, M., 2000, Spatial variations of financial devolution in primary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4, 517-530.
- Bondi, L., 1991, Attainment at primary schools: an analysis of variations between school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7(3), 203-217.
- Bradford, 1984, Influen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the importance of the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16, 49-66.
- Bradford, M., 1991, School performance indicators, the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arental cho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319-332.
- Brown, M. and Madge, N., 1982, *Despite the Welfare State: A Report on the SSRC/DHSS programme of Research into Transmitted Deprivation*, SSRC/DHSS Studies in Deprivation and Disadvantage,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ondon.
- Buck, N., 2001, Identifying neighborhood effects on social exclusion, *Urban Studies*, 38(12), 2251-2275.
-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England), 1967,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A Report*(the Plowden Report),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 Coleman, J. S., et a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Coopers & Lybrand, 1988, *Local Management of Schools: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 Davison, R. N., 1981, *Crime and Environment*, Croom Helm, Beckenham.
- Delucchi, M., 1993,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town, *Education*, 114(1), 96-101.
- Demie, F., Butler, R. and Taplin, A., 2002,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he disadvantage factor: empirical evidence, *Educational Studies*, 28(2), 101-110.
- Duncan, G. J. and Raudenbush, S. W., 1999, Assessing the effects of context in studies of child and youth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29-41.
- Duru-Bellat, M., 2000, Social inequalities in the French education system: the joint effect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5(1), 33-40.
- Ellen, I. and Turner, M., 1997, Does neighbourhood matter? assessing recent evidence, *Housing Policy Debate*, 8, 833-866.
- Garner, C. L., 1988, Education attainment in Glasgow: the role of neighbourhood deprivation, in L. Bondi and M. H. Matthews(eds.), *Education and Society: Studies in the Politics, Sociology and Geography of Education*, Routledge, London, 226-256.
- Garner, C. L. and Raudenbush, S. W., 1991,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ttainment: a Multileve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64, 251-262.
- Gigg, J. A., 1979, Human health problems in urban areas, in D. T. Herbert and D. M. Smith, *Social Problems and The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84-116.
- Gordon, D. and Spicker(eds), P., 1999, *The International Glossary on Poverty*, CROP.
- Griffith, J., 2002,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relation of school learning and social environments to minority achievement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Elementary Schools Journal*, 102(5), 349-366.
- Herbert, D. T., 1976, The study of delinquency area: a social geographical approac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 472-492.
- Jencks, C. and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in a poor neighborhood, in L. Lynn and M. McGahey(eds.),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11-186, National Academic Press, Washington, DC.
- Johnston, R. J., 1976, Political behaviour and

- residential mosaic, in *Social Areas in Cities, Volume II, Spatial Perspectives on Problems and Policies*, John Wiley, Chichester, 65-88.
- Lee, V. E., Loeb, S. and Lubeck, S., 1998, Contextual effects of prekindergarten classroom for disadvantaged children on cognitive development: the case of Chapter 1., *Child Development*, 69(2), 479-494.
- Moulden, M. and Bradford, M. G., 1984, Influen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the importance of the local resident environ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16, 49-66.
- Murphy, M. J., 1989, Housing the People: From Shortage to Surplus?, in H. Joshi (ed.), *The Changing Population of Britain*, Basil Blackwell, Oxford.
- Murray, R., and Boal, F. W., 1979, The social ecology of urban violence, in D. T. Herbert and D. M. Smith(eds.), *Social Problems and the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39-157.
- Nash, J. K., 2002, Neighborhood effects on sense of school coherence and educational behavior in stud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ren & Schools*, 24(2), 73-89.
- Nuttall, D. L., 1990, *Differences in Examination Performance*, RS 1277, Research and Statistics Branch ILEA, London.
- Nuttall, D. L., Goldstein, H., Prosser, R. and Rasbash, J., 1991, Differential school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769-776.
- Paterson, L., 1991,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 multi-dimensional and multi-level study,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5(3), 97-121.
- Paterson, L., 1991, Social class inequalities in Scottish school-leaver entry to higher education, in H. Maguiness(ed.) *Educational Opportunity: the Challenge of Under-Achievement and Social Deprivation*, Local Government Centre, Paisley College, Paisley.
- Plewis, I., 1987, Social disadvantage, educational attainment and ethnicity: a com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8(1), 77-82.
- Rutter, M. L. and N. Madge (eds.), 1976, *Cycles of disadvantage: A Review of Research*, Heinemann, london.
- Rutter, M. L. et al., 1979, *Fifteen Thousand Hours*, Open Books, London.
- Sammons, P., Nuttal, D. and Cuttance, P., 1993, Differential school effectiveness: results from a reanalysis of the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s junior school project data,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4), 381-405.
- Sanger, M. B., 1979, *Welfare of the Poor*, Academic Press, New York.
- Shuttleworth, I.,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privation, as measured by individual free school meal eligibil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at GCSE in Northern Irelan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4), 487-504.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Penguin Books, Harmondsworth.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
- Vartanian, T. P. and Gleason, P. M., 1999, Do neighborhood conditions affect high school dropout and college graduation rates?, *Journal of Socio-Economics*, 28(1), 21-42.
- White, K. R., 1982,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3), 461-481.
- Willie, C. V., 2001, The contextual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student achievement test scores by race, *Urban Education*, 36(4), 461-478.
- Willms, J. D., 1986, Social class segreg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pupils' examination results in Scotla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24-241.

최초투고일 03. 09. 25

최종접수일 03. 12. 01